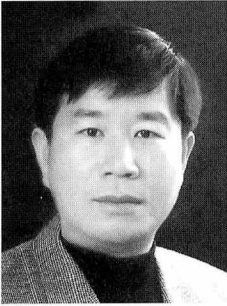


강우현 경기도회장



우선, 지난 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경기도연합회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은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가 결론날 것이며, 향후 3년간 직불제의 기준인 전국평균가격 재산정 및 대선 등 여러가지로 농정의 매우 중요한 변혁시기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반드시 성과물을 내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회원들의 애로 사항을 자주 듣고, 1-2가지의 목표를 정한 후, 여기에 집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용 강원도회장



강하면서도 합리적인 농권운동으로 회원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계인력이 고갈되가는 농촌지역의 영농후계자원을 위해 2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어려워지는 우리 농산물 판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통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회원들과 시군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군수를 비롯한 도위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으며 농촌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도 활성화시켜 우수한 인력이 앞으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철용 충북도회장



대의원들의 선택이 그르지 않도록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연합회를 만들겠으며 조직의 개선점을 찾고 그동안의 경험과 철학을 기반으로 소신껏 일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로써 농업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농정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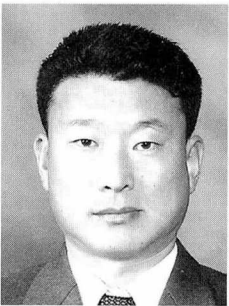
장석철 충남도회장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농민과 같이하는 충남도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농업과 농업인을 음해하고, 악화시키려는 모든 세력과 과감히 투쟁하여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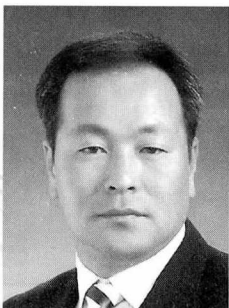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태 전북도회장



시·군 일선 조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연합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회원간 내부 결속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력이 배가 되도록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전남도회장



변화와 개혁을 통한 한농연의 위상정립과 농권운동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전남도연합회를 올곧게 세우겠다는 공약을 1만4천 회원동지께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면서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을 치유하고 화합과 단결된 도연합회의 모습으로 회원동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권 경북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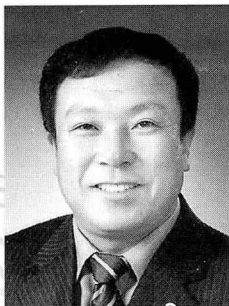
한농연 조직의 읍면회장부터 시작하여 시연합회 모든 직책을 두루 거쳐 도연합회 사무처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내부적인 상황을 다른 누구보다 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연합회의 조직 내부 결속 강화와 조직의 대외적인 위상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이현호 경남도회장



한농연경남도연합회의 주인은 바로 동지 여러분입니다. 저는 도연합회의 문턱을 없애고 항상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동지여러분께서 망설임 없이 비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과 정성을 도연합회로 모아 주십시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강하고 힘있는 도연합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영천 제주도회장



조직 재편과 조직 단결을 위해 힘쓰고, 농업인 교육사업을 확대해 도연합회 재정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개인적 사심은 버리고 회원들이 화합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힘써, 제주농업을 이끌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른 농업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제주농업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